

나주혁신도시 신규 진입로 11월 착공한다는데...

입체교차로 안되면 교통지옥 되풀이



광주에서 나주 혁신도시로 진입하는 국도 1호선 산포~금천 교차로 구간이 9월 오전 출근 시간대를 맞아 극심한 차량 정체를 보이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 빗가람 혁신도시 진·출입도로가 출·퇴근 시간이면 극심한 차량 정체를 겪으면서 '지옥의 도로'가 되고 있다.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광주에서 국도 1호선을 타고 진입하는 차량들이 남평 병목구간부터 밀리고, 역방향인 나주에서 금천교차로를 통해 진입하는 차량이 혁신도시를 사이에 두고 겹치면서 교통 대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차량 정체는 출·퇴근 시민 불편은 물론 빗가람 혁신도시 투자를 검토하던 민간 투자자들이 발길을 되돌리는 등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혁신도시 시행 3사(LH공사, 전남개발 공사, 광주 도시공사)에서 계획중인 신설도로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오는 11월 착공 예정인 산포~혁신도시간 신규도로의 경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입체화 교차로 조성이 필수적인데도, 공사주체인 시행 3사 중 LH공사의 반대로 공사비가 저렴한 '평면교차로'만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나주시와 나주 빗가람 혁신도시 등에 따

산포~혁신도시 4차로 조성 시행사 공사비 부담에 난색 금천교차로도 뒤늦게 재시공 입체화 공사로 정체 해소

르면 나주 빗가람 혁신도시 조성에 참여했던 시행 3사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 산포~혁신도시간 980m 4차선 진입로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완공은 2017년이다.

이와 함께 상습 정체구역인 금천교차로 입체화 공사도 오는 2017년 초 완공 목표로 진행중이다.

금천교차로는 혁신도시 조성이 한창이던 지난 2012년 입체화 교차로로 조성돼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빚발쳤는데도, 예산 등을 이유로 7억 원을 들여 평면식 도로확장과 신호체계만 개선한 곳으로, 이후 되레 정체 현상이 심해지자 부랴부랴 58억6000만원을 추가해 재공사 중이다. 결국 공사 지연 및 재공에 따른 시민불편에다 예산 7억원도 낭비한 셈이다.

이 같은 예산낭비 현상은 조만간 또 한차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나주시는 금천교차로 실패 사례를 들어 시행 3사에 산포~혁신도시간 4차선 진입로 공사에 입체화 교차로 조성을 요청하고 있지만, LH공사의 난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시행 3사와 나주시는 해당 도로에 입체교차로를 추가했을 경우 총 사업비는 2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평면교차로는 188억원으로 91억원이 저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공사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예산 절감보다는 입체교차로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혁신도시 출퇴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외면한 채 예산 절감에만 치중하는 LH공사의 행태 때문에 산포~혁신도시간 도로 확장마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에서 영산포로 출·퇴근을 하는 정모(45·광주 두암동)씨는 "출퇴근 교통대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교통을 겪고 있다"면서 "혁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교통 대란이 예상됐던 부분인데, 도로 신설 등을 하지 않은 이

■ 산포~혁신도시 신규도로 조성도



유를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이르면 11월 내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산포~혁신도시 도로가 신설되면 교통대란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입체화교차로 설치 여부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면서 "금천교차로처럼 재공사를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행 3사를 대상으로 입체교차로 설치를 설득중이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내달 15일 개최 국제농업박람회 지역관광·농산물 판촉 병행 추진

나주시가 '2015 국제농업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 지원 업무를 강화한다.

9월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이기춘 나주 부시장 주재로 부서별 지원업무 추진상황과 애로사항, 향후 추진계획, 박람회 조직위의 협조사항 등을 점검하고 홍보와 지원업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박람회 기간 동안 경제 기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지역행사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과 농산물 판촉행사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25일까지 나주대학교와 빗가람대학교 우안 2km에서 열리는 '영산강 역사와 사랑' 축제와, 내달 30일부터 31일까지 국립나주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 마한문화축제를 비롯한 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함께 보고 갈 수 있도록 연계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박람회장 판매관 내에 입점하는 관내 농식품축산물 생산 업체와 음식점에서는 맛과 품질이 높은 최고의 상품을 엄선해 판매하고, 친절함 응대로 지역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입점 업체에 대한 사전교육 및 현장지도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 대한 친절 위생교육과 함께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로변 풀베기와 노상적치물 제거, 꽃길 조성 등의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2015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18일간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나주=손영철기자 ykson@

꿈길 찾아 떠나는 진로콘서트 3000명 참여 성황 나주시·나주교육청 개최

나주시와 나주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2015 꿈길 찾아 떠나는 나주 진로콘서트'를 개최해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9월 나주시와 나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나주종합스포츠 파크에서 열린 '2015 꿈길 찾아 떠나는 나주진로콘서트'에 나주시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나주진로콘서트는 나주시와 나주교육지원청이 무지개교육 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학교혁신과 지역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서트 행사는 진로탐색관, 진로설계관, 진로 멘토상담관, 테마별 진로직업체험관, 나주시 관내 고교와 대학 홍보관, 진로직업정보 갤러리관 등 6개 섹션으로 나눠 총 44개 부스로 운영됐다.

특히 학생들의 직업 선호도조사를 거쳐 마련된 직업체험관은 팝아트 조상화, 빠띠세(제과제빵), 로보공학자, 마술사, 바리스타, 천연염색 지도사, 판매공예가, 작업치료사, IT-개발자 등이 다양하게 선정됐다.

또 청소년 진로 교육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을 비롯한 주요 업체들이 협연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는 교육지원청은 이번 행사를 일회성이 아닌 초·중·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연계해 참여 학생



나주시와 나주교육지원청 공동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나주종합스포츠 파크에서 열린 '2015 꿈길 찾아 떠나는 나주진로콘서트'에서 참가 청소년들이 직업체험관 등을 둘러보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kson@

두가 미래의 큰 인재들로 성장해 나가는 발판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진로콘서트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초·중·고교 시절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는 꿈과 비전을 정립해 나가는 목표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진로콘서트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 지역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함양과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kson@

책속에서 길 찾는 독서토론회 나주공공도서관 12일 개최

나주공공도서관(관장 이종범)이 '제4회 책속에서 길을 찾는 독서토론회'를 개최한다.

독서토론회는 전남도교육청이 추진중인 '독서·토론수업 활성화' 사업에 따라 고등학생의 통합적 사고능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 향상 등을 위한 것이다.

본선 대회는 오는 12월 오전 10시 나주공공도서관에서 16개교 24개 팀이 경쟁을 펼치게 되며, 상위 4개팀이 선발된다.

본선대회 상위 4개팀은 오는 18일 오후 1시 목포포토관에서 최종 우승을 놓고 경합한다.

토론회는 임진왜란 당시 도체찰사에 임명돼 군무를 총괄했던 유성룡이 쓴 '징비록'으로, 논제는 '명나라 군대의 파병요청은 올바른 선택이었다'로 선정됐다.

최종 우승팀과 준우승팀에게는 각각 전남도교육감상인 최우수상과 우수상, 나머지 팀은 나주공공도서관장상인 장려상이 수여된다.

이종범 나주공공도서관장은 "학생들이 이번 독서토론 대회 참여를 통해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 내는 창의력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kson@

산수옥면가

41년 모밀장인 이재성 대가

광주·전남 가맹점 대모집

- ▶ 최고의 마진
- ▶ 최소의 창업비용
- ▶ 최소의 인건비

“산수옥면가”입니다!!

산수옥면가에서 제공하는 옥수와 소스는 41년 노하우를 통해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알맞게 개발된 제품으로서 전문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줄서서 먹는 대박집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각화점, 화동점 성업중!!

가맹점 문의 산수옥면가 H. 010-2018-2005, T. 080-358-5000

연제동 광명·새한 2차 특별분양

지금의 기회

탁월한 생활인프라 & 미래가치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사이에 위치한 새한아파트는 79㎡, 방 3개와 욕실 2개 480세대의 고객선호도 100%로 구성된 중소형 아파트로 주위 시세보다 저렴한 남향 로얄층 1억8천만원 선착순(동·호 지정분양)입니다.

왕산초등학교가 바로 위치해 있으며, 대형 롯데마트 입점 예정이며 지하철 2호선 예정지입니다. 교통 또한 빛고을로, 북광주 IC, 임방울대로 등 접근성이 매우 좋고 이용도 편리합니다. 주위 첨단지구와 양산지구 개발의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리며, 시세보다 저렴하고 인기몰이 중 소수 아파트로 내집 마련 절호의 기회입니다.

- 3.3㎡당 400만원대 특가분양
- 높은 수익률 임대사업자 환영
- 즉시 입주 대출 70% 가능, 선착순 동·호 지정
- 반도·양산지구 중심생활권 우수한 명문학교

상무지구 10분

임대사업자 환영

계약즉시 2,000만원 시세 차익/방 3개, 화장실 2개, 고객선호도 100%만족

특별분양 문의 (062)574-0079